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12월 3일 (제1230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성경은 거울이다

나는 거울을 많이 보는 편이다. 남자가 무슨 거울이나 하겠지만, 거울을 통해 머리는 단정한지, 옷매무새는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늘 확인한다.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대중 앞에 자주 서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나는 영혼의 거울도 늘 본다. 영혼의 거울은 성경이다. 성경은 한자로 말하면 성경(聖經)이지만, 거울 경(鏡)을 써서 성경(聖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살펴 정갈한 모습을 유지하듯, 성경을 통해 내 영혼의 상태를 살펴 점 없고 흠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히4:12).

말씀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가증된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그분만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 거울은 외면을 비추지만, 성경은 내 내면을 비추기에 가능하다.

거울을 보고도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빼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망신을 당해도 싸다. 영적 거울인 성경을 보고도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약1:23~25)며 성경을 읽지만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권면했다.

나는 거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거울을 많이 보면 미인이 된다고 하지 않던가. 성경을 통해 영적 미남이 되게 하시니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을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6~17).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인가 생각하자!

우리는 지난주일 1991년도의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보았다. 그 모습 위로 30년의 격차가 있는 현재의 목사님이 오버랩되었다. 화면 속의 그분은 30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명성을 얻은 스타가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귀신을 쫓고, 바닥만 한 구름을 명하여 작렬하던 태양을 가리게 했던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소경 눈을 밝히고, 의사가 포기한 자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추계산상집회 첫날 단에 서신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오직 기도 덕분입니다. 목회 40년 가까이 나는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

인기, 명예가 따라옵니다. 영적 스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감독은 강한 훈련을 이미 거친 상태요, 이미 스타인 자입니다. 우리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이 영적 훈련을 통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셨고(마4:2),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하셨으며(막1:35),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눅5:16).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까지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애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눅22:44). 그래서 예수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최대의 스타가 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의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도는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만능키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유연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그런데 다들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다, 바쁘다 합니다. 그러면 매일 벤치나 지키고 살아야지요. 시편 107편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시107:10~11)고 하셨습니다. 감독 말을 안 들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독 말대로 기도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시고’(시107:14), ‘눛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시고’



2023 추계산상집회(11월 27일(월)~30일(목)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었습니다.

내가 왜 철마다 여러분을 기도원에 모이게 하는 줄 압니까? 그것은 기도의 전지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선수들도 비시즌 때면 전지훈련을 가서 맹훈련을 하지요? 감독은 훈련만이 선수를 스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힘든 훈련을 반복해서 시키는 겁니다. 제가 설교에 앞서 2시간 이상 기도시킨 것 역시 여러분을 영적 스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스타가 되면 엄청난 부와

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유언하셨고, 부활 승천하시며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눅24:49). 그래서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까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셨고(행2:1~4), 성령 받은 그들은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

(시107:16),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문을 연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무자했던 한나가 한 게 뭘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집회 기간동안 영하리던 날씨가 따뜻한 것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신묘수 전도사



봄날씨와 함께 풍성한 점심시간



카페 공사하는 교역자와 신학생



성령이 역사하는 산상집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9:23)



속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소년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 위 등지에서 알 7개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보니 독수리 알이었습니 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니 지혜롭게 가져온 알도 거기에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알이 깨지더니 병아리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왔습니 다. 병아리도, 독수리도 어미 닭을 좇아 구구거리며 자랐습니 다. 그러던 어느 날, 닭인 줄 알고 살고 있던 독수리 중에 한 놈이 하늘로부터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 닭을 채 가지고 솟구쳐 날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독수리는 너무 놀라 자기랑 모습이 같은 다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봤는데 우리랑 똑같이 생긴 것이 하늘을 날더니 우리 형제인 닭을 한 마리 낚아 채갔어.” 그러자 나머지 여섯 독수리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독수리라니~~, 우리는 닭이야.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얼른 도망가야 한다고 엄마가 그러셨어.” 그런데 다음날 또 독수리가 나타나자 다른 형제들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먼저 독수리를 본 어린 독수리는 “저것 봐, 우리랑 같지? 저게 어떻게 하는지 잘 봐.” 하며 도망치려는 독수리 형제들을 막았습니다. 그 독수리는 오늘도 닭을 한 마리 채 가지고 날아갔습니 다. 이를 보고도 다른 독수리들은 별생각이 없었지만, 그 독수리만은 고민에 빠졌습니 다. ‘나랑 똑같이 생긴 저것은 닭을 잡아먹고 하늘을 차고 오르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다음날도 또 독수리가 나타나자 그 독수리는 “나도 날아볼 거야.” 하고 날개를 펴며 날아보려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어미 닭도, 닭 형제들도, 심지어 독수리 형제들도 “너 미쳤니? 빨리 숨어!” 하고 만류했습니다. 그래도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크게 휘저으니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와~ 나는 닭이 아니었어. 독수리였어. 애들아, 나처럼 날아봐.” 그제야 다른 독수리 형제들도 하나둘씩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 아직 날개를 펴지 못하는 독수리들도 있었습니 다.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썩기만 할 뿐이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입니다. 개 새끼는 개고, 소 새끼는 소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자식이야. 너 자신을 알라.”고 누차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급기야 성육신한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잘 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듯,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행한 것을 보라. 너도 똑같이, 아니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하시며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 닭을 채가는 것을 보여주듯 말입니다. 독수리가 날려고 할 때, “안 된다. 넌 닭이야.”라고 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닭장 속의 닭으로 살게 하려고 태클을 걸지만, 태



총회장 이초석 목사

생을 어찌 속일 수 있 답니까? 마귀와 그의 졸개 들 이 모 여 회 의 를 했 습 니 다 . “인간들은 누구 나 성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길 원하지. 우리가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어찌해야 성공과 행복, 건강을 잘 숨길 수 있을까?” 그러자 한 놈이 그것들을 땅속 깊숙이 숨기자 했습니다. 이 말에 다들 “그건 안돼. 인간들은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찾아낼 거야.”라고 했습니다. 또 한 놈이 “바다 깊숙이 숨깁시다.” 했더니, “그것도 안 됩니다. 인간들은 바닷속도 다 헤쳐 찾아낼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고민하고 있을 때 지혜롭기로 소문난 놈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가까이 두는 겁니다. 등하불명(燈下不明)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부정을 심어주는 일만 하면 됩니다. 인간들 마음에 부정이 싹트면 바로 옆에 있는 그것들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 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해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것이 내 한계야라며 부정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어쩔 수 없습니 다.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승이 아주 커다란 어항을 만들고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각각 미꾸라지며, 송사리며, 붕어를 가지고 왔습니 다. 스승은 미리 준비한 유리로 된 가로막을 어항 가운데로 가져다가 막아놓고는 제자들의 물고기를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메기 한 마리를 어항의 비어있는 쪽에 놓고는, “자~ 메기가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보거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메기를 보니 배가 고팠다 가로막 반대쪽의 물고기를 먹으려 공격적으로 덤

뵙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유리 가로막에 막히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사흘 후에 다시 오라며 돌려보냈습니 다. 사흘 뒤, 스승은 한 제자에게 유리 가로막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 다. 가로막이 없어졌는데도 메기는 미꾸라지가 옆을 스쳐도, 심지어 송사리가 지나가도 못 본 체합니 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다시 사흘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사흘 뒤, 스승은 다른 메기를 한 마리 들고 나타났고, 그것을 어항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메기는 거침없이 물고기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먼저 있던 메기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 메기도 송사리를 잡아먹고, 미꾸라지도 잡아먹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쳐놓고 메기를 조련하듯, ‘이건 안 돼. 그냥 살아야지.’ 합니 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마귀란 놈이 우리의 본성을 잊게 하여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지 않는 유리막을 치우시고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막이 치워졌어도 당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부정 속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 다. 부정의 생각을 썩 죽여야 삶이 달라집니 다.

생각의 파괴력을 아는가 생각이 네 운명을 좌우한다

두 친구가 사냥을 갔습니 다. 꿩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만 쫓다가 한 친구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늪에 빠진 친구가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늪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밖에 있던 친구가 “조금 침착하게. 사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해도 늪에 빠진 친구는 절망적이기만 합니 다. 친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친구를 구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친구의 머리에 총을 겨눠라. 그리고 너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라.” 밖에 있던 친구는 사냥총을 친구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네. 1초라도 빨리 가는 게 자네에게 편할 걸세. 잘 가게.” 하며 방아쇠를 잡아당겼습니 다. 그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늪에 빠진 친구가 늪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날 죽이려 해?” 간신히 친구가 진정되자 그가 총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이 아니네. ‘나는 죽는다’는 자네의 부정적인 생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던 것이었지. 내가 총을 겨눌 때 이미 자네의 부정적인 생각은 죽은 걸세. 그래서 자네가 늪에서 나올 수 있었네.” 그렇습니 다. 생각이 결과입니다(렘6:19). 팔자요? 생각을 바꾸면 바뀝니 다. 상황이요? 생각이 먼저 바뀌면 상황도 바뀝니 다. 어느 성도가 섬에 사니 사방이 막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방이 뚫려 있어 시원하기만 한대요? 배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했다. 그 배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야 합니 다(벧4:13). 긍정적인 생각, 미래지향적인 생각,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생각대로 이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도 ‘나는 늙어서’, ‘나는 여자라’, ‘나는 못 배워서’, ‘나는 평신도라’ 하실 겁니까?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지혜로운 선택

2023년이 벌써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많은 날이 속절없이 가는 듯하나 나의 오늘은 매일 매일 크고 작은 내 선택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다.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중 내가 선택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나를 만든 것 아닌가. 이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벗어날 수 없는 법칙이다. 정부의 국가적 정책 결정이나 외교적 선택, 기업의 투자, 구매, 채용, 기술 연구개발 또한 어떤 경로를 거쳤든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나 기업의 오너그룹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며, 그게 쌓이고 쌓여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여러 기업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선택했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이는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고, 어떤 이는 시간을 내서 봉사하며, 또 어떤 이는 단지 예배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그것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각자의 생각에 따라 선택하며 신앙생활을 해간다. 신앙 역시 이러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각자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 지나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끄셨다고 고백하게 되지만, 이는 신앙고백 차원의 깨달음인 것이고, 어쨌든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싶고, 내 삶뿐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속한 단체의 삶을 풍

성하게 할 선택과 결정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물론 인생의 모든 순간, 다 좋아서,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선용하고,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 하는 것은 순전히, 온전히 우리 몫이다.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를 하게 되든, 잘 모르고 선택한 것이 그릇된 방향으로 이어져서 그 선택을 후회하든, 그 쌓인 선택의 수혜자나 피해자는 다름 아닌 나일 수밖에 없다.

목사님은 '내 말이 내 인생의 씨가 되어 내 삶을 만든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 강조하신다.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는 것 역시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고 권면하지 않던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는 선택을 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생각이 많다가 땅속에 묻는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의 결과로 바로 가서 장사한 둘은 배로 남겨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땅속에 묻어놓는 선택을 한 자는 호된 응징을 받았다. 핑계 댈 수 없는 선택의 결과다.

후회 없는 선택,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오늘도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Henry Han

:: 신앙논객 ::

친구 따라 천국 간다

유유상종(類類相從)!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다. 스무 살 대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제는 전도사로 사역한 지 어언 11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해마다 공통으로 보게 되는 현상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함께 다니며 어울리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점이다. 취미나 관심사, 또는 신앙이 비슷한 사람끼리 동질감을 느끼면서 호감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그와 동화되는 것이다. 심지어 연인이나 부부는 점점이 많다 보니 외모나 분위기까지 비슷해지기도 한다.

도서관에 다니는 친구와 어울리다 보니 자기도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 친구보다 자기가 더 많이 책을 읽는다는 성도도 있고, 헌신 봉사하는 선배들을 닮고 싶은 마음에 그들처럼 예배와 모임이 끝나고도 교회 성전에 남아 더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그 선배들보다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된 청년도 있다. 물론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배드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걸 번폐스러워하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 예배와 모임에 시간을 드리는 데 인색해진 성도, 원래는 근검절약하면서 살았었는데 꾸미기

좋아하는 친구 때문에 덩달아 사치스러워진 청년, 쉽게 분을 내고 상처 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어느새 자신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자녀도 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고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것도, 그를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이다. 성령의 사람과 함께 하면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점점 육신의 사람이 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처럼, 친구 따라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교회에서 영적인 주의 종과 성도들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친밀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만한 사람이 가까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지,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인지 스스로 돌아보자.

신혁주 전도사

:: 책을 펴다::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라

유독 상황판단에 형광등인 사람이 있다. 버스 지나간 다음 손 흔드는 사람 말이다. 요즘 버스야 대중 10분에 하나 꼴로 온다지만 기회라는 것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친구가 아닌가.

지도자가 때를 분별하지 못해 아무 때나 나서거나 한 템포 늦게 나아가 기회를 놓치거나, 혹은 너무 조급하여 일에 초를 치는 경우가 있다면 자성해야 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에 '전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했다.

바람이 불 때가 연을 날릴 적기다. 바람이 없는데 연을 띄우려고 법석을 떨어 봐야 연은 1m도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어 있다. 시류를 잘 타는 사람,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높이 상승하게 되어 있다.

세계는 지금 정보 전쟁, 아이디어 전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그래서 지도

자는 무(武)에도 능해야 하고, 문(文)에도 능해야 하고, 정보전에도 능해야 한다.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수집, 분석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늘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언제든 전장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장에 나간 병사가, 더욱이 지도자가 군화 끈을 풀고 군복을 벗고 있다면 긴급출격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체되고, 그것은 곧 패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교회는 도태되고 만다. 그래서 나는 신학생들에게 '지금 3년 사역을 다해 공부해라, 책을 봐라, 신문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라.'고 말하는 것이다. 연은 바람 불 때 날리는 것이다.

이초석 목사 저서, '적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지휘관이다' 중에서



:: 소망의 언덕 ::

‘더 퍼포스’

지난주, 교보문고를 향하는 제 마음은 무척이나 설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큐티책 '더 퍼포스'가 입고되어 서가에 진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부터 온라인으로 전자책 판매가 시작되긴 했지만 실물 책을 판매하는 건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3년 전 호주에서 돌아와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청소년들에게 큐티 생활을 하도록 권했었습니다. 큐티 교재로는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하는 말씀 묵상집을 구입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어느 날 큐티 책에 실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100권 이상 단체구매를 하면 담임목사님의 글과 교회 광고와 일정 등을 맞춤형으로 제작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총회장 목사님의 칼럼과 광고 등을 실어서 맞춤형으로 된 큐티책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편집부에 연락했고, 이런저런 조율을 하고 나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차례나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편집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부적 이유로 맞춤형 큐티책을 출간해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났습니다.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야겠다고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청소년 말씀 묵상집을 만들자. 그래, 우리 삶의 목적 되신 예수... 책 이름은 '더 퍼포스'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끝에 2020년 2월에 첫 큐티책 '더 퍼포스'를 출간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더한 끝에 마침내 정식 출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배운 믿음을 행함으로 옮긴 결과물이기에 더욱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그간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준 교사들과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따뜻한 격려와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목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현승 목사

:: 프롬인터넷 ::

:: 참된 깨달음 ::

불신자가 본 예수

우리는 사랑의 화신으로 살다 간 ‘남수단의 슈바이처’라 불린 故 이태석 신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를 알고 있다. 그 영화에 이어 <부활(復活)>이란 영화가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이태석 신부가 48세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뒤, 어린 제자들이 성장하며 벌어진 기적을 조명한 영화다.

그런데 이 영화를 연출한 구환 감독은 기독교도 천주교 신자도 아닌 불교 신자였다. 그는 은퇴 자금을 털어 영화를 제작했다고 한다.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사제의 삶을 조명하는 영화를 연이어 제작한 것이다.

그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 출신임에도 따뜻한 사랑을 담은 영화를 제작한 이유를 말했다.

“영화 <울지마 톤즈>에 이어서 영화 <부활>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었나요?”

“이태석 신부의 형, 이태영 신부가 지난 2019년에 59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강마른 모습으로 저를 불러 두 가지 유언을 남기셨어요. 하나는 이태석 재단을 계속 이끌어가 달라, 다른 하나는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에 동생의 삶을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 작은 학교를 짓고 가르쳤던 어린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남수단에 찾아갔더니 의사이거나 의대생이 된 제자가 무려 57명에 달했습니다. 남수단의 작은 톤즈 마을에 신부님이 지은 허름한 학교에서 6년 만에 국립대 의대생 57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 작은 가난한 마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공무원, 대통령실 경호원, 언론인까지 모두 70명의 제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고, 신부님처럼 살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병원에서 진료하는 모습을 보니 먼저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환자 손부터 잡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손을 잡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 진료를 하기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태석 신부님이 해오던 진료 방법입니다.’라고 답하더군요. ‘아이들이 신부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태석 신부 제자들이 한센인

마을에 가서 봉사 진료를 했어요. 60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환자 3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의사가 없으니 주변 마을에서 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밥을 굶으며 진료를 했어요. 어느 환자는 12년 만에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 손을 잡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태석 신부님이 저희 곁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신부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것 같습니다. 신부님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너무 기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좋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태석 신부의 사랑의 표현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구나. 바로 이것이 부활의 의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영화 제목은 <우리가 이태석입니다>였는데, 그 자리에서 제목을 <부활>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태석 신부에게 빠져든 것은 단순히 그분의 봉사 때문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간 방식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사회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한센병 환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신부님 이야기만 꺼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를 존경스럽게 만들거나 그를 보고 감동 받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습다. 그가 살았던 삶은, 누구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화 <부활>에서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심(下心)의 리더십과 경청하고 공감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실천이 이태석 신부의 생애였지요.

영화 <울지마 톤즈>에서는 이런 삶에 감동을 느낀다면 일상에서 실천해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이태석 신부의 삶을 따랐고,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뒤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삶을 사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태석 신부가 됐을 때 사회는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저는 최고로 행복한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삶은 뜻대로 안 되고, 불만투성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분을 통해 이야기하며 즐겁고, 하는 일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태석 신부에 관한 휴먼 영

화, 종교 영화를 제작하게 되셨습니까?”

“사람들은 이 영화 <부활>이 종교 영화라고 부르지만 이건 굉장히 강한 고발 영화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건 어려웠는데, 이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직자의 성폭력 문제, 권력 분쟁, 세습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태석 신부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글들이 나왔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성직자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의료진들과 교사들, 정치인들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터져 나올 때도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지도자로서의 바람직한 상으로 귀감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영화 흥행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감독님은 불교 신자라고 들었습니다. 가톨릭 사제인 이태석 신부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계속 제작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이태석 신부는 그 삶 그대로였습니다. 법복 입은 스님이든, 예복 입은 목사가든, 사제복을 입은 신부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신부님의 삶을 보며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진석 추기경이 감사패를 주신다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저는 톤즈 마을에서 예수를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보고 왔으니까요. ‘당신이 본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라고 물으시기에 ‘제가 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 마음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톤즈 성당은 여기처럼 으리으리하지 않습니다. 허름한 성당에 벽은 포를 맞아서 구멍이 뚫렸는데, 사람들이 성당만 들어오면 얼굴이 밝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힘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신부의 고결한 삶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톤즈를 통해 이태석 신부의 예수적 삶과 같은 모습을 보며 감동과 감명을 받습니다. 그분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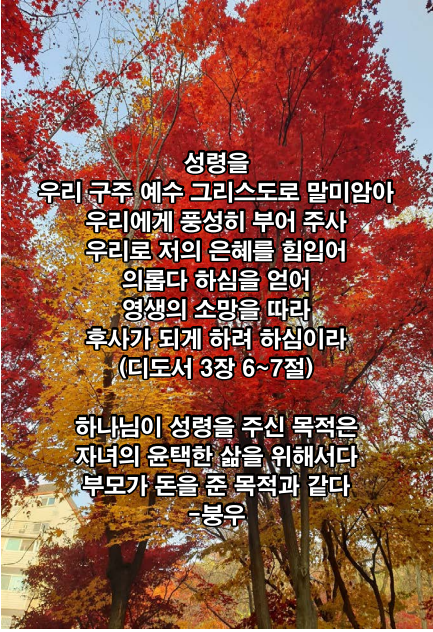
병마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기적을 만들어낸 이태석 신부를 추모합니다.

인생의 매뉴얼

10년을 타던 차를 얼마 전 바꿨다. 운전 을 한 지 20년이 된지라 운전에는 자신 이 있어 자동차 매뉴얼을 보지 않고 얼마간을 타고 다녔다. 핸들을 돌리면 방 향이 바뀌고, 페달을 밟으면 차가 앞으 로 나가는 기본원리는 변함이 없으니 운 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후진하는데 계기판에서 경고음이 나 면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고장 난 줄 알았는데 뒤에 내가 보지 못한 장애물이 있어 차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멈춘 것이 다. 매뉴얼을 읽어보니 고속도로에서 페 달을 밟지 않고, 핸들을 조정하지 않아도 차선을 인식해서 운행이 가능했고, 앞차 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멈추는 등 편하고 안전한 기능이 많이 있었다. 무지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기능을 사용 하지 못하고 피곤하게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자동차를 옛날처럼 가고 서고박에 못 하고 기능 을 다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요즘 가전제품들도 편리한 기능이 많지 만, 많은 사람은 만든 제작사의 매뉴얼을 보지 않고 포장 뜯고 무작정 전원 코드부 터 켜고 사용하기 바쁘다.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진리는 성경을 깊게 읽지 않아 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알 게 해주신다. 다만, 인생을 살아갈 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간 다.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에는 병을 치료 받는 법, 사기당하지 않는 법, 걱정과 두 려움을 이기는 법, 물질의 어려움을 해 결하는 법,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무릎 꿇리는 법,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 법,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는 법 등,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 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 셴다. 이제 선택은 우리 몫이다.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 아 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천국 에 갈 것인지, 피곤하고 힘든 생활을 계 속할지 말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 이니이다”(시119:105). **송명국 집사**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6~7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은
자녀의 운택한 삶을 위해서다
부모가 돈을 준 목적과 같다
-봉우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서울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